

가을 주민투표를 위한 신규 웹사이트 개설

2026년 4월 23일

오는 10월 19일 실시될 주민투표를 앞두고, 알버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.

다가오는 주 전역 주민투표와 관련해, 통일된 캐나다 안에서 주권을 지닌 알버타를 지향하는 이민 및 헌법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가 현재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 알버타 주민들은 AlbertaReferendum2026.ca를 방문해 9개 투표 문항을 확인하고, 주요 쟁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참고해 투표에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

“알버타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. 농부와 목축업자부터 에너지 산업 종사자, 교사, 간호사에 이르기까지, 알버타는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 더 큰 가치를 향해 노력하는 곳입니다. 이번 주민투표는 그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, 그리고 통합된 캐나다 내에서 보다 주권적인 알버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알버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.”
다니엘 스미스(Danielle Smith), 주수상

2026년 주민투표는 10월 19일 실시되며, 알버타 주정부는 주민들이 투표할 9개 문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 이번 주민투표 문항은 ‘알버타 넥스트’ 타운홀(Alberta Next townhall) 과정에서 주 전역의 주민, 전문가, 정책 담당자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알버타 넥스트 패널(Alberta Next Panel)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
해당 주민투표 문항은 통일된 캐나다 내에서 알버타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.

9개 문항 중 5개는 주 이민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이민은 언제나 알버타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지만,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교실과 응급실, 사회 복지 서비스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면서, 알버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

주민투표는 이러한 시스템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알버타 주민을 우선하기 위해 주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민들에게 묻습니다.

9개 문항 중 4개는 뜻을 같이하는 다른 주들과 협력해 특정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1867년과 1982년에 확립된 권한 분립 원칙이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모호해졌습니다. 지난 150년 동안 각 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, 연방 정부로부터 자치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. 맞춤형 헌법 개정은 알버타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에 보다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
"이는 결정권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알버타 주민의 손으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. 새롭게 개설된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이 사안을 충분히 숙지하고, 알버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"

미키 아메리(Mickey Amery) 법무부 장관

이번 주민투표는 10월 19일, 알버타 선거관리위원회(Elections Alberta)의 주관하에 실시됩니다. 투표는 주 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, 자격 요건을 갖춘 알버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종이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보

- [주민투표 - 알버타 선거관리위원회](#)
- [알버타 넥스트 패널 권고안](#)

관련 뉴스

- [올가을 주\(州\) 주민투표 실시 안내\(2026년 2월 20일\)](#)

멀티미디어

- 주수상 연설 듣기
- 기자 간담회 보기



미디어 문의

샘 블랙킷(Sam Blckett)

sam.blckett@gov.ab.ca

587-589-6048

주수상실 대변인

헤더 젠킨스(Heather Jenkins)

Heather.Jenkins@gov.ab.ca

780-245-0421

법무부 대변인